



통권33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1994. 7. 11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주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 전화: (02)763-2606 · 765-5282



- 지난 89년 베이징을 거쳐 평양에 들어간 문익환 당시 전민련 상임고문과 김일성 주석이 단독회담을 마친 뒤 대형그림 앞에서 밝은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

역사적인 7.25 남북 정상회담을 눈 앞에 두고
김일성 주석의 급서는
화해와 협력 더 나아가
자주·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갖게 하였습니다.

몽금포를 그리는 ‘복띠할아버지’

편집부

아 침나절에 장대비가 지나간 뒤 까치고개 너머 선생님을 뵈러 갔다. 서울 집이 으레 그렇듯이 높은 담장에 청록색 대문을 단 집이었다. 선생님을 따라 층계를 올라가니 아담한 뜨락에 담쟁이 넝쿨, 모과나무가 어우러져 있었다. 선생님들을 위해 마련한 집인데 콘크리트 냄새 풍기는 삭막한 곳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실뜨개 모자를 쓰고 화초를 돌보던 최남규 선생님은 꼭 톨스토이 노년기의 모습을 연상시켰다. 이 종 선생님도 방에서 나와 맞아주셨다. 언제 뵈어도 단아하고 은화한 모습이시다.

“여기가 내가 쓰는 방이에요.”

방 임자의 성격만큼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었다. 화, 목, 토요일에는 주차장에서 밤늦도록 일하시고, 댁에서는 집안살림도 하시느라 바쁘실텐데…

하긴 육십 청춘, 팔십 환갑이라고 새까만 머리에 긴장감있는 몸놀림이 전혀 그 연세로 보이지 않는 분이셨다.

고향보다 더 그리운 몽금포

조창손 선생님께서는 1929년 8월 25일, 황해도 장현군 후남면 삼가리에서 조기현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셨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비록 지주에게 알짜는 다 뺏기고 쪽정이 만 돌아오는 소작농 생활이래도 행복한 편이었지만, 아홉살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가세가 몹시 어려워졌다. 어머니가 혈압때문에

한쪽을 못보는 몸이라 동생은 큰어머니 집에 보내지고, 선생님은 고모집으로 가게 되었다.

“거기서 과수원일을 하며 지냈는데 나이도 들고 하니 어디 나가서 기술이라도 배우고 싶어졌어요. 근데 고모가 놔주질 않아. 하도 야단하니까 고모의 큰사위가 몽금포에서 분주소장(경찰서장)하면서 어업 일 하는 걸 도와 주라고 해서 그리로 갔지요.”

지금도 고향보다 더 그리운 곳이 몽금포라고 하셨다. 해변에는 길이가 1km, 넓이가 3마장이나되는 모래산이 바람 불 때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생겼다고 한다. 깨끗한 모래알만으로 봉긋하게 솟은 모래산에 올라가서 굴러내리면 그렇게 재미질 수 없었다. 모래 속에 허벅지까지 묻어놓고 놀아도 명주 바지 저고리에 묻은 걸 툭툭 털어내면 그만이었다. 낮에는 일면기계로 국수를 놀려 신문지에 싸서 팔기도 하고, 저녁에는 몰래몰래 동네 처녀, 총각들이 모여서 옛내기 윷놀이도 하면서 아기자기한 날들을 보냈다.

“우리가 순진했어”

1956년 농기계 임용소에 배치 받았지만 마음에 안 맞아서 기계를 다루는 일을 하게 되었다. 뜨락또르(트렉터)와 무한궤도 땅꾸(탱크)를 다루는 조수일을 했지만 이 역시 맘에 맞질 않아서 수산사업소 보위성원이 되었다. 고깃배가 바다에 나갈 때 경비하는 일이었다. 이 무렵(1957) 결혼도 하고, 기관일을 배우고 싶

어했던 소망이 이루어져 수산성 중앙간부 양성원에 들어가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셨다.

“반공강연할 때 보면 직장을 자기자유로 선택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내 경우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취미가 맞는데 있어야 일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959년 2월 무렵부터 운반선의 기관장일을 맡게 되었고 1962년 3월 28일 울산 근해로 오게 되었다. 1970년대에 유년기를 보낸 나로서는 113 수사본부와 같은 텔레비전 드라마에 열광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동네 조무래기들이 TV가 있는 집에 모여들어 숨을 죽이며 지켜보다가 극이 끝나면 그것을 재현하며 놀던 일이 떠올랐다. 참, 그때 내가 이렇게 ‘북에서 온 사람’과 마주 앉아서 수박을 쪼개 먹으며 다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어디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듣다보니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일 수가 없었다. 남한 출신의 공작원이 가족이 보고 싶어서 집에 갔다가, 몰래 신고한 가족들 때문에 붙잡혔고 그 가족을 볼모로 진술을 강요하자 자기가 아는 바를 일러주었다. 그것도 모르고 오던 선생님 일행은 조명탄이 환한 바닷가에서 꼼짝없이 잡힐 지경이 되었다. 간신히 보트를 타고 물에 올라 보니 솜누비옷에 양털신발, 비상식량도 없는 빈털털이였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이 추격을 피해 다니면서 닷새를 꼬박 굶자 선장이 “배고파서 난 못가겠다.”며 민가에 가서 밥을 얻어먹자고 하였다.

“우리가 순진했어. 어디가서 밥 좀 주십쇼하고 사정하면 동정해 줄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우릴 훑어보고 리장네 집에 가자고 하더군. 리장이 불쌍한 사람 밥 좀 주지 하니까 선장이 떠벽떠벽 걸어 가더라고. 선장이 잡혀 가지고 뚜드려 맞는 중 후다닥 뛰어나왔지.”

결국 골짜기를 건너다가 비오는 날 논에 물



보러 나온 사람이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과 방첩대에게 잡히게 되었다. 산꼭대기에서 보니 포위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군대놀이하는 아이들처럼 보여서 웬찮다고 생각했는데 가까이에서 총을 쏘더란다. 울산에서 부산경찰서로 보내졌는데 ‘죽이겠으면 죽이고 살리겠으면 살려라.’ 하는 심정으로 낮이나 밤이나 잠만 잤다고 하셨다.

동료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이어

1963년 11월 1심에서 무기형을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64년 2월 서울구치소에서 대전교도소로 이감되어 계속 대전에 계셨다. 젊은 시절에는 건강체였는데 영어생활중에 위병이 생겨서 꼬치꼬치 몸이 마르고 혈압이 230까지 오른데다 위출혈까지 하게 되셨다.

“그때 한방에 있던 유한욱 선생님과 조 아무개 선생이 혈압이 터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찰 시켜주고 수건 빨아주곤 했는데 움직이면 피가 쿨럭쿨럭 올라왔지요. 73년부터는 전향공작이 바짝 더했어요. 난 젊긴 젊었지만 다치면 곧 죽을 것 같거든. 야네들한테 매는 몇번 맞았지만 다른 사람처럼 심하게 당하지는 않았지요.”

교도소안에서 깡패들이 바늘을 실로 묶어 가지고 다니면서 엉덩이를 쿡쿡 찌르는 등 악랄하게 전향공작을 했지만 마산에서 김석희 선

생이 죽자 구타는 하지 않았다.

75년, 76년에는 병이 악화되어 모두 죽는다고 했다.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 실날같은 목숨을 이어가고 있을 때 동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김대수(무기, 간병생활) 박사는 약처방도 해주며 극진하게 돌봐주었고 김선명(43년 복역, 대전교도소 수감중) 선생은 겨울에 튼손으로 양말을 깨끗이 뺀뒤 밥을 넣어 손으로 눌러짜서 풀처럼 나오는 걸 담당에게 데워달라고 해서 억지로 입을 벌려서 먹여주었다. 간수도 “조영감 약 좀 더주라”며 방에서 1명씩만 약을 탈 수 있게 제한된 제도속에서 약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이때 전향에 대한 압박이 가장 심했다. 약사먹을 돈을 다달이 3만원씩 주고 병을 고쳐주겠다, 요구하는 곳에 출역도 내보내고, 출소하면 일자리도 주선해 주겠다는 등 조건부로 전향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선생님은 “그런 조건 들으려고 했다면 아예 여기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건 나보고 죽으라는 애기다.”고 딱 잘라 거절하셨다.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서 91년 12월 24일에 나오게 되었지요. 병도 많이 완화되고 형무소 조건도 좋아졌어요. 나는 소장이 순시 돌다가, 가둬두면 앓아서 병만 생각하면서 자유로 돌아댕기게 했어. 운동도 30분짜리를 두시간으로 늘려주고 특혜를 받은 셈이지요.”

‘복띠 할아버지’의 사람사랑

마침내 형 집행정지, 병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었지만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난감할 수가 없었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이 사회에 나가면 누가 밥 한술 먹여주겠는가? 차라리 나 가지 않는게 낫겠다.’고 생각하셨단다. 그래서 검사가 나오면 환자티를 내지않기 위해 정구도 치고 운동 나가서 뛰어다니기도 하셨다. 그러나 많은 동지들이 나갈 것을 권고해서 아산 요양소로 김석형 선생님과 가시게 되었다. 거

기에서도 타고난 부지런함을 발휘하셨는지 서울로 오실 때 요양소 사람들이 많이 섭섭해하고 아쉬워했다고 한다.

송경령 신부의 주선으로 김봉수씨 집에서 사설 때는 동네 사람들이 ‘복띠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단다. 집 앞 뿐아니라 골목길을 모두 쓸어내고 약수를 떠오면 집집마다 나눠주셨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점심때가 되어서 난 선생님의 음식솜씨까지 접할 기회를 얻었는데 손수 끓이신 근대국은 멀치맛이 구수하게 배어나왔고 물김치와 참외샐러드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었다. 왜 사람들이 ‘복띠 할아버지’라고 불렀는지 알만 하였다. 다만 일솜씨가 뛰어나시기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옆에서 보는 사람 눈에도 쉽고 재미나게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건강한 노동의 즐거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자신과 그 주변을 반짝반짝 빛내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세대에 분열이 되었으니 우리 세대에 통일을 시켜놔야 후대들이 아무 근심없이 나라를 위해 일을 할 텐데 다음 세대까지 넘어간 게 아쉽고 섭섭합니다. 모두 뜻은 같은데 분열이 돼서 힘을 합할 수가 없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끝으로 이런 당부 말씀을 짧은 사람들에게 하셨다. 아마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신 것 같았다.

장마가 아무리 지루해도 때가 되면 걷히게 되어 있는 것처럼, 분단이 빛어 놓은 가슴아픈 상황들도 사라질 때까지 있으리라. 그리되면 선생님에게도 몽금포의 어디메쯤을 우리와 함께 되밟을 날이 오겠지. 반공에 가위눌렸던 시대에는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선생님과 우리들의 만남이 이처럼 따뜻한 믿음의 꽃을 피워낼 수 있었던 것처럼.

또 공안정국인가

- 구속자 전원석방과 수배자 해제를 주장한다

편집부

정권의 위기관리 수단으로 되풀이 되어온 공안 칼바람이 또 몰아닥쳐왔다. 그것은 경찰청의 한총련 핵심간부 40여명에 대한 검거령에서 비롯되었다. 지난 5.27부터 있었던 한총련 제2기 출범식이 끝나고서도 안병욱 전남 경찰청장과 심상명 광주 지검장은 “평화로운 출범식”과 “대다수 학생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담화문까지 낸 바 있었다.

그러면 왜 공안당국이 감춰둔 비수를 꺼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른바 북핵문제에 대한 죄대없는 대응, UR협정, 노경총 임금 합의, 상무대 비리의혹 따위로 정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데다 열화같이 일고 있는 전쟁반대, 7·8월 통일운동들을 미리 막아보려는 속셈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공안바람은 한총련 2기 출범식에서 비롯된 것 만은 아니다. 희망새 단원 검거, 사회과학출판사 대표 구속, ‘태백산맥’ 저자와 발행인 고소 사건, ‘사과원’ 사건의 유죄판결, 국가보안법 존속, 굳게 잠긴 감옥문 등 현 정권이 갖고 있는 냉전적 분단 이데올로기와 국제화, 개방화를 외치며 노동계급에 대한 고통 전담 사고에서 찾는게 옳을 것이다.

드디어 대검 공안부는 한총련 핵심간부 90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령을 내리고 한총련 의장 등 10명에 대해선 사전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아 내는가 하면 전국 시도 경찰청 보안과장 회의에서 검거지침을 내리면서 학생뿐 아니라 재야단체와 노동계에 침투되었다며 용공세력을 내사한다고 하였다. 갑

자기 공안 찬바람이 온땅을 휘몰아치고 거리마다 수사관이 활개치고 다녔다. 이렇게 시작된 검거선풍은 남총련 학생과 노동자에까지 일찌기 없던 대량구속으로 이어졌다.

지금까지(7월2일) 구국전위 사건으로 23명, 한총련 출범식 관련 2명, 남총련 115명, 전기 협 등 파업 노동자 41명이 구속되고 공안당국의 발표만으로도 200명이 넘는 학생, 노동자들을 쫓고 있다. 겨우 2주동안에 벌어진 일이다.

그외에도 백산서당 대표, I.S 학생조직관계 8명, 1기 한총련 김재용 의장도 구속되었다. 또 3자 개입으로 부산 노동자 문예창작단 대표를 구속했다.

굳이 양심수 존재를 부정하는 문민정부이기에 양심수 석방이 없었던 터에 감옥은 더욱 반갑지 않은 만원사례가 된 셈이다.

공안당국이 어떠한 이유를 들어 설명한다해도 이같은 무더기 구속사태는 천할 정도로 자주 내세워진 ‘문민’ 상품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내기에 충분했다. 시대착오적 반민주 악법을 적용시킨 것이 그렇고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이 그러하다. 문민이 부당하게 자행되는 공권력에만 의지한다면 지난날 군사정권과 어떤 차별성을 인정받겠는가.

해마다 있어온 한총련(전대협) 발대식이었고 청순한 청년 학생이 미래지향적인 나라와 겨레사랑 표현으로 잘못된 타성을 일깨워주는 주장은 청량제 역할로써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진대, 또 경찰청장과 검사장의 감사 담화까지 낸 행사에, 뒤늦게 이미 자체토론에

서 지워진 출범선언문 일부 내용을 특히 강조하여 90명이나 되는 학생간부를 검거하려는 당국의 처사를 국민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학생들에 대한 이러한 강압적 대응은 남총련 학생들의 무더기 구속사태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UR협정 비준반대는 600만 농민만의 일이 아니라 정치권이 포함된 국민적 관심사였다. 학생들이라 하여 예외일 수는 없다. 민주국가에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불이익에 합법적으로 반대할 수 있고, 그 표현으로 집회 시위도 할 수 있다. 왜 남총련 학생들이 학생처에서 학생운임 할인증을 발급받아 기차를 타려한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야했는지 - 쫓기다 마침 들어오는 기차를 세웠으나, 열차안에서 차비를 낸 학생들을 굳이 구속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 앞뒤를 돌아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조치였다.

어느날 신문에서 광주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을 공권력이 무릎을 끊어 엎드리게 한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찼다. 이들이 누구인가.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하게 한 이땅의 사랑스런 주인공들 아닌가.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할 모든 것,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가. 오직 노동자의 노동에서만이 그러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 아닌가. 그들이 과학적 사람인가. 반역자인가. 왜 그렇게 처참하게 인권을 유린해야 하는가.

8시간 노동제,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고 너무나 순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합법적인 쟁의신고와 파업예고 3일을 앞두고 비번으로 농성중인 기관사, 검수원 614명을 무더기 연행하고 그중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파면하였다. 당국이 파업을 불러들인 셈이다. 누가 시민의 발을 불모로 하였는가. 노동자는 자기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합법적인 쟁의를 하게 된다. 노동쟁의는 노, 자간의 일이다. 왜 공권력이 개입하고 더구나 구속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주장한다.

무더기 검거 사태 등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구속된 학생, 노동자, 민주인사들을 석방하라. 그리고 수배자를 해제 조치하라.

만에하나 실정법상 위반 사항이 있다해도,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측면에서 불구속 수사를 해야한다. 언론의 일방적 여론 재판과, 대법 확정때까지 무죄인 피의자를 마치 죄인 취급하는 반민주 행위는 중단해야한다.

국가보안법이 반민주, 반민족, 반통일 악법으로 즉각 철폐되어야 함은 다시 말할 것도 없거니와 '노동지도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속영장이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로 ILO에서 철폐권고 의결같은 창피한 일도 있어선 안될 것이다.

끝으로 이 어린이의 일기일부를 보면서 어른들 자신을 돌아보면 싶다.

“… 아버지는 3-4일 집에 오시지 않았다. … 경찰에 쫓겨 이리저리 피하신다. … 아버지는 통일호를 모는 철도 공무원이다. 일주일에 한두번씩은 꼭 밤을 새우신다. 다른 아버지가 출근할 때 퇴근하시고, 휴일에 집에서 가족들과 놀 때 아버지는 기차를 몰고 대전으로 가신다. … 작업복을 입고 기관사 모자를 쓰신 우리 아버지는, 양복을 쪽 빼입고 한올의 머리칼도 훌러내리지 않도록 깔끔을 떠는 남자배우 보다도 백 배 천 배 멋있다.”

다시는 누구 자식에게도 이런 일이 없는 좋은 세상을 기다립니다

편집부

장 마철이 되었다. 어디 들어가 있을 때면 잠잠하다가도 이상하게 사람이 움직이려고만 하면 내리붓는 빗방울들. 변의숙씨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에 유난히 비는 쏟아져내려서 바지가 온통 진흙무늬로 물들어버린 뒤에야 약속한 민가협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컴퓨터에, 전화에, 목요집회 준비에 매달려 각자 정신이 없는 간사들과 자식 면회갈 계획으로 도란도란 말씀을 나누시는 어머님들이 내뿜는 열기때문에 사무실은 후덥지근한 것 같았다. 한참을 웃 말리고 변의숙 씨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변의숙씨는 지난 92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터진 '민족해방애국전선'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에 연루되어 10년형을 언도받고 복역중인 노동자이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대학진학을 포기한 변의숙씨는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서 납땜공으로 일하면서 노동자 생활을 시작하였다. 땀과 피로로 얼룩진 고달픈 공장생활 속에서 노동자가 열등시되는 사회모순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변의숙씨는 노동운동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각을 갖게 되었다. 그후 87년에 협성사의 노조사무장 일을 맡게 되었고, 89년 3월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유예되었다. 변씨는 노동운동에 대한 이론적 모색을 하는 과정에서 독서모임을 참가하였는데 이 모임이 나중에 1995년 위원회(애국동맹)의 모태가 되었다.

변씨는 91년 노동자의 신분으로 거례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길을 모색하던 중에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다.

92년 9월 안기부에 의해 연행된 변의숙 씨에 대한 주요 기소내용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으로 탈출, 잠입,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 국가기밀 수집누설죄(간첩죄),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이다. 변의숙씨의 항소이유서에는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이 안기부에 의해 오랜 기간 매우 치밀하게 준비되었고 대선을 앞둔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기에 터트린 한편의 정치드라마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녀의 주장이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적혀 있었다.

조작된 간첩사건은 언제나 희생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변의숙씨는 "안기부와 검찰은 우리의 활동을 확대 왜곡하여 나라의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짓밟고 양심에 따라 살고자 했던 그동안의 삶을 송두리채 부정하고 오히려 비양심, 이기심에 손을 내밀고 악수할 것을 강요하였다."고 성토하였다.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간첩단 사건이기 때문에, 변씨에 대한 자료를 대하는 마음은 더욱 무거웠다. 지난 대선에서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었는지 떠올리면서 그 시기에 한 여성노동자가 겪었을 고초가 얼마나 컸을까 곱씹어보고 있노라니 활달해 보이시는 어머니 한분이 힘겨운 숨을 들이쉬며 들어오셨다. 바로 변의숙씨의 어머니인 이윤옥님(57)



◀ 지난 92년 11월
기독교회관에서 진
상규명과 양심수색
방을 위한 농성중인
남한조선노동당 구
속자 가족(가운데 분
이 이윤숙님이시다)

세)이다. 한눈에 뵙기에는 건강해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어머니는 다리가 아파서 버스에서 내려 사무실까지 걸어오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노라고 답답해하셨다. 이미 자료를 통해 변의숙씨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게 되었으므로 거두절미하고 그동안 어머니의 삶을 여쭤보았다.

무슨 할말이 있겠냐시면서 시원하게 말문을 여신 어머니는 시종 쾌활함을 잊지 않으셨지만 씩씩한 목소리와 허허로운 웃음중에도 어머니의 눈에는 계속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자식을 감옥에 보낸 어머니의 마음이 다 똑같겠지만 그래도 딸을 계다가 미혼인 딸을 10년이나 감옥에 두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더욱 안타깝고 저리기만 할 것이다.

어머니는 경기도 이천군으로 시집와서 딸 다섯에 막내아들 하나를 두었고 그중 의숙씨는 넷째딸이다. 이천에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의숙씨 아버님이 간경화로 사형선고를 받게 되어서 경황중에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큰딸만 출가시키고 서울로 이사온 지 1년만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홀로 5남매를 키우며 어렵게 생활을 꾸리셨다. 어머니는 암 전하고 똑똑하기로 소문난 의숙씨가 돈때문에 스스로 대학을 포기한 것이 가장 한스럽다고

하신다. 어머니 마음에야 경희대 간호학과를 지원한 의숙씨의 공부를 어떻게든 시켜볼 각오도 해보았지만, 남동생 공부나 제대로 시켜야지 하는 생각에서인지 의숙씨는 면접날 기어코 학교를 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 대학을 보냈더라면 이렇게 감옥에 가지 않았을지도 모르지요. 하긴 여기와서 보니 대학생 아이들도 모두들 잡혀가고 고생들 하고 있어서, 꼭 그런 것 만은 아니겠지만 말이예요.”하는 어머니의 웃음뒤에는 똑똑한 딸을 공부시키지 못한 안스러움이 뜻내 베어있었다.

대학을 포기한 뒤 의숙씨는 일반 회사 취직을 하지 않고 공장을 고집하였다. 지금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자기가 고집한 일이어서 그랬는지 더욱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의숙씨가 공장에서 노동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신 것은 물론이고 91년 4월, 의숙씨가 1달여간 집을 비웠을때도 계집애가 친구집에 가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꾸짖기만 하셨다. 후에 재판과정에서 이 때 의숙씨가 방북한 것을 아시고는 어머니는 너무도 놀랐다고 하신다.

의숙씨가 연행된 뒤 어머니는 10년동안 일하던 경희대 구내식당을 그만두시고 의숙씨를 위한 싸움과 옥바라지에 매달리셨다. 의숙씨가 미결로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구치소를 찾아가셔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특히 1심재판에서 의숙씨는 무기구형을 받았는데, 여자에게 무기구형을 내리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면서 죄가 커도 너무 큰가보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신다. 재판이 진행되는 1년동안 안기부 앞과 구치소, 법원, 민가협 집회 등 의숙씨와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발벗고 뛰어다니느라, 생계도 꾸려나가기 힘들게 되었고 건강도 나빠지셨다. 특히 다리가 무척 아파서 걷기가 고

통스럽다고 하신다. 민가협 간사 설명으로는 택시를 타고 안기부 앞에서 내리려다가 전경이 제지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한발을 내딛은 상태에서 택시가 출발하여 발이 겹질러진 적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것이 화근이 된 것 같다. 그 몸으로 어머니는 지금도 오전중에 식당일을 하신다. 아들과 출가하지 않은 막내 딸과 함께 반지하 전셋집에서 살고계신 어머니는 그래도 자식들이 형제애가 깊어서 마음 고생은 없으시다. 의숙씨 때문에 언니는 아가를 출산한지 몇일 되지 않은 몸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동생은 안기부직원에 의해 감시, 미행당했고 기무사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그래도 남동생도 여동생도 의숙씨 언니도 감옥에 있는 의숙씨를 걱정하고 이해해주고 어머니가 옥바라지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가난하지만 참으로 따뜻하고 바르게 살아온 가정임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의 걱정은 그저 징역살이 하는 딸뿐이다. “의숙이가 몸이 약해서 걱정이고, 모든 게 마음에 걸리지. 오늘도 집에서 옥수수를 삶았는데 이거 의숙이가 좋아하는데 생각하니 눈물이 나는거야. 또 우리 의숙이가 참외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참외를 먹으려하면 넘어가지가 않아. 겨울이면 추위 많이 타는 애가 얼마나 추울까 걱정이고… 여자가 10년을 징역살아야 한다는것이 얼마나 끔찍해. 게다가 거기서 그리고 있다가 나오면 시집은 언제가. 그저 세상이 좋아져서 빨리 나오기만 바랄뿐이야.” 의숙씨가 한 일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어머니는 “처음엔 무조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서 어른들 말씀 듣고 사람들 만나고 하니까 잘못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데요. 지금은 어찌됐든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신다. 국가보

안법이 얼마나 못된 법인지 이제는 알았다고 하시는 어머니는 의숙씨로 인해 알게된 세상의 다른 면을 이제는 진실이라고 믿으며 묵묵히 살아가시는 것이다. “그냥 살 때는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줄 꿈에도 몰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국가보안법이고 양심수고 아무것도 몰랐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닥치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이런 걸 알고 그래서 다시는 누구 자식에게도 이런 일이 없도록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어머니의 한숨 속에는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의 염원이 깊게 담겨 있었다. 장마비를 계속 피할 수 없듯이 우리 모두는 분단으로 인한 고통, 통일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생겨나는 많은 비극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왜 내가 움직일때만 비가 오나 하는 원망처럼,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하는 원망도 해보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한가지의 빛줄기속에서 서로를 어루만지며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는 노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 통일이라는 맑게 갠 날을 향하여.



환하게 웃고 있는
변의숙씨▶

바람부는 날에는 관악산을 가야한다

한미경 (광인열전, 학생)

〈산행전날〉

따르릉! 따르릉!

나 - 여보세요.

친구 - 미경이야?

나 - 응.

친구 - 내일 정말 산에 갈꺼야? 비 올지도 모르는데.

나 - 비가 와도 간다고 했어.

친구 - 그럼 친구들은 몇명이나 가는데?

나 - 세 명.

친구 - 그런데 왜 가? 남들은 적당히 빠지는데 왜 너만 갈려고 그래. 내일 일요일인데 나랑 놀자. 꼭 가야 되는것은 아니잖아.

나 - 그 애들은 다 이유가 있으니까 못 가지. (나는 우리 광인열전 친구들이 못가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해 주었다.) 또 꼭 가기로 약속도 했지만 이번 기회에 산에도 오르고 싶고 무엇보다도 등산을 계기로 후원회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 후원회원들 간에 모임도 없는데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얼굴이라도 보겠나.

친구 - 알았어. 조심해서 갔다와. 그런데 도시락은 어떡하니?

나 - 셋이서 미리 이야기를 해서 은영이가 밥, 선남이가 김치, 내가 마른반찬을 싸 가기로 했어. 잘 갔다 올테니까 걱정하지마.

친구 -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일찍 들어와.

나 - 되도록이면 곧장 오려고 하겠지만 뒷풀이가 있다니까 쪘끔 늦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
그리고 첫날인데 인사는 하고 와야지.

친구 - 여하튼 최대한 빨리 와야 해.

〈산행날〉

구로공단역에서 9시 30분에 은영이와 선남이를 만나기로 했는데 꽤 늦게 도착했다.

나 - 늦어서 미안해. 아침에 일어나서 반찬 만든다고 늦었어.

선남 - 괜찮아. 혹시라도 너 안오면 집에 갈려고 … 안 오길 바랬는데.

은영 - 그래 사실 나도가고 싶은 마음반, 안가고 싶은 마음 반이다.

나 - 낙성대역에 제시간에는 도착하겠다. 어떻게 할지는 가서 생각해 보자.

우리는 이렇게 양심수후원회 첫 산행에 나섰다. 발걸음도 무겁게 말이지. 낙성대역에 도착한 우리는 마치 후원회 사람이 아닌 것처럼 딴전을(?) 피우다 결국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시는 회장님을 따라 관악산으로 들어섰다.

바람이 꽤 불어서 그런다고 흐린것도 아니어서 등산하기에는 딱 어울리는 날씨였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후원회 사람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져서 긴장도 풀리고 차츰 우리도 사람들속으로 젓어 들어간다.

해태상을 지나 연주대가 바라다보이는 등성이에 이르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마치 물먹고 난 푸른 나무처럼 깨끗해서 우리가 언제 이처럼 맑은 서울을 본 적이 있나 싶어 자못 감동스럽기까지 했다. 모두들 냉을 엎고 강이 있고, 어디서나 고개 들어 바라보아도 듬직한 산이 눈에 들어오는 축복받은 도시, 서울을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다. 나역시 당연히 오늘 산에 오길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도 해본다.

더디가도 함께 오르는 길이어선지 오늘은 매우 인상적인 산행이다. 중간중간에 무리하지 않게 쉬면서 점심식사하고 서로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소개와 기상천외한 놀이도 하는 동안 출발하기전의 어색스러움과 망설임은 사라져가면서 어느새 우리도 양심수후원회 회원이 되어간다.

과천쪽으로 내려오는데 전경들이 산중턱까지 올라서서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겸문하고 있다. 높은 산에 도둑없다고 하더니만 우째 이런 일이 있나, 아마 남총련 겸문을 하고 있나보다. 씁쓸해진다. 산에서 내려와 세상속으로 접어드는 순간부터 우리는 양심수가 끝없이 양산되는 현실부터 맛보게 되다니…

나는 왜 내가 오늘 여기왔나 생각해본다. 몇년씩 감옥을 살고 출소하신 선생님들을 뵙고 저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하셨으며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나 궁금했던 게 이유중의 하나이다. 70이 넘도록 자신의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선생님들을 뵈면서 그 건강한 모습에 존경스럽고 부럽기까지 하다. 나는 후원회에 기입한 것으로만 내 생활의 위안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게 된다. 다음에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오늘처럼 따뜻한 식사도 같이하고 싶다.

어찌다보니 후원회 사람들과 뒷풀이를 하다가 12시를 넘겼고 친구에게 한 소리 들었다. 그래도 오늘, 은영, 나, 선남이는 산행에 오길 잘했다.

다음에는 광인열전이 모두 산에 같이 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과천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연주사에 들렀다. 지나가는
사람 볼들고 품참고 찰칵!▶

남편의 꿈과 희망

이주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동차지부 검수원 김명환씨의 아내입니다. 저는 이번 전기협 파업과 관련하여 조금이나마 진실을 밝히고자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전기협이 불법단체이고 또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시민의 발목을 잡아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하는 이기적 집단으로 알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전기협은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려는 무시무시한 집단이 아닙니다. 단지 한 집안에서는 성실한 남편이자 가장이고, 철도밥 먹은지 수년에서 수십년씩 된 철도노동자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전기협의 소속된 모든 사람은 전부 철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저의 남편을 비롯한 철도 노동자들은 그동안 너무나 열악한 조건에서 일해왔습니다. 점심 먹을 시간조차 없이 밥을 굽고 장기운행해야 하는 기관사들의 설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그 다음 날 9시에 퇴근하는 24시간 근무제도, 365일 단 하루의 휴일도 없고 남들이 명절이나 연휴라 하여 가족과 함께 들로 산으로 갈때에는 더욱더 바쁘게 뛸 수 밖에 없고 밤새 일하면서도 야식조차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철도 노동자들.

우리 남편들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88년에도 이러한 근무조건에 항의해 기관사들이 하루반동안 과업을 한 적이 있었지만 해고자 3명만 생겼을 뿐 근로조건의 개선은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철도청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남편들은 8시간 노동을 원칙으로 이외의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댓가와 주휴일 선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였습니다. 물론 농성은 근무를 마친 비번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농성 자체가 철도업무에 방해가 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계속적인 협상요구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은 전기협이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교섭권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협상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기협 대표는 모두다 각각 소속된 사무소의 조합대표들로 7000여명이 요구했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요구인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보장하라는, 제발 법을 지켜달라는 절절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 없이 철도청은 계속 협상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언론은 전기협이 무엇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고 27일부터 불법파업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만 연일 보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2일 저녁에 갑자기 협상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협상시간을 1시간30분 남겨놓고 통고되었기 때문에 전기협 간부들은 협상시간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밤새우면서 협상내용을 준비하던 농성자들을 23일 4시 경찰들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농성장은 해산되고 모두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이때 농성장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물론 비번 근무자들이었고 다음날 근무를 해야할 이들이 연행됨으로 해서 23일 오전에는 지도부의 파업결정없이도 자연스레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파업시한 4일이나 앞두고 경찰의 진압으로 인해 정부가 그토록 우려하던 파업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결국 불법파업을 유도한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태는 여러분도 모두 느끼는 것과 같이 순수한 철도노조원들과 철도청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있는 우리 남편

들과 이러한 순수함을 불법으로 몰아 무조건 박살내고 말겠다는 너무나 강력한 정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러한 상황은 보도하지 않은 채 '철도과업으로 고통을 겪는 시민들의 표정' 보도에만 열을 올리고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만 계속 보도했습니다. 계속 취집듯이 모는 정부방침에 그래도 굴하지 않고 철도노동자들은 기독교회관으로 농성장소를 뚫고 농성을 진행하였고 기독교 인권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던 26일 일요일 청와대 측근으로부터 협상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농성자들이 한가닥의 희망을 가져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의가 들어오고 얼마되지 않아 기독교회관 주위는 정복, 사복 경찰들도 기독교회관을 진입하여 농성자 230명을 모두 연행해 갔습니다. 군사정권 때에도 기독교회관은 성역처럼 간주되어 공권력이 투입된 적이 없었는데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권이 어떻게 이럴수 있습니까. 그후 남편들에게 닥친 것은 구속과 수배, 직위해제라는 강경조치였습니다. 근로조건을 개선해 보겠다는 순수함에 대한 댓가로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 다 쉬는 공휴일을 우리들에게도 보장해 달라는 요구.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법대로 하자는 요구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할 그런 끔찍한 요구였습니까.

현재 철도원들은 거의 복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현장으로 돌아가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함께 외쳤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생각은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꼭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의 꿈도 소망도 언젠가는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철도청은 철도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구속자 석방과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기 바랍니다.

노동자임이 자랑스런 신나는 일터를

여혜정(노동자. 34세)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평생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일을 찾으리라는 바램으로 늘 조바심하면서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내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과 그 반작용으로 앞날에 대한 막연한 기대, 그리고 어쩌면 그냥 그렇게 허공에서 허우적대다가 한 번뿐인 내 인생을 하릴없이 보내버릴 것만같은 서글픈 예감 따위로 뒤틀려 되어 하루하루를 버티기조차 힘겨울 지경이었다. 그러다가 일단 현실을 인정하고 일과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며 미래를 설계하기로 과감한 궤도 수정을 결심했다. 이제 두 달이 되어가는 생산직 노동자로서의 나의 현재는 바로 그 결단의 결과물인 셈이다.

사실 거의 8년만의 직장 생활이어서인지, 아니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던 생산노동 현장에 뛰어들었다는 이유에서인지 '나의 일터'에 출근하기 위해 매일 아침 집을 나서는 일이 처음 얼마 동안은 내게 기쁨이며 그저 맑은 일만 하면서 노동의 즐거움, 땀흘려 일하는 보람을 만족하며 지내리라 했던 결심이 처음엔 그 실천이 가능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아니, 그보다는 내가 맑은 일은 스피커 부품인 보이스 코일의 끝부분에 납땜을 하는 일인데 그 일에 숙달되기도 수월치 않았을 뿐더러 현장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만만찮은 일이어서 사실상 다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만한 여력도 없었다는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노동의 즐거움, 땀흘려 일하는 보람'이라는 허구와의 밀월은 열흘이 채 가기도 전에 끝났다. 콘베이어 벨트로 쉴 새 없이 내려오는 작업물품을 자신의 공정에서 제대로 소

화해 내지 못하는 미숙련공들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까지, 오전 오후 각 10분씩의 휴식시간과 50분의 점심시간을 제외한 9시간 정도의 성규 작업시간 외에도 두서너 시간을 수당도 없는 '자발적 임업'을 해야 하고, 숙련공이라 해도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추궁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다음날 조금이라도 여유있게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한 두시간쯤 공짜 임업을 하는 것이 다반사인데다가 알량한 휴식 시간과 점심 시간조차도 밀린 일을 하는 선량한 노동자들이 다름아닌 내 동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마스크도 없이 낡 Mahm을 하면서 체내에 쌓이면 배출이 되지 않는다는 유독가스를 들이 마시며 빠 빠지게 일하고 있는 나를 문득 느낄 때면 눈물나게 서러워지기도 하면서 가슴속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게다가 박카스 따위의 소위 강장음료를 거의 매일 한 두병씩 마시며 작업시간을 버티는 이들이 태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 쉬임없이 미완의 보이스 링을 쏟아내는 콘베이어 벨트가 괴물처럼 두려워지고나 자신도 공장의 기계부품과 다를 바 없이 느껴지는 일이 점점 잦아지면서 책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노동자의 현실이 확연히 보이는 듯 했다. 노동조건이 그다지 나쁜편이 아니라는 이 회사의 현실이 이럴진대 이보다 더 열악한 노동 환경속에서 일해야 하는 많은 노동자들과 전태일, Y.H 여공과 같은 선배 노동자들의 슬픔과 분노를 이제는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진짜 노동자'가 되었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설부른 오만이거나 경솔함을 내 보이는 것에 불과한 것일까?

8년을 꼬박 일하고도 한달 봉급 42만원을 받는 소진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하여 5년 여를 기숙사 생활을 하며 유일한 낙이라고는 기숙사의 친구들과 시장구경이나 T.V를 보고 봉급날엔 나이트 클럽에 몰려가 술 마시고 춤추는 것이 생활의 전부인 경숙이, 영아, 봉진이, 정렬이, 희정이…

무엇을 어떻게 착취당하고 있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그저 고된 공장일로 부터 벗어나는 방법이라고는 좋은 남자 만나 결혼 하는 수 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바로 '진짜 노동자'의 모습이다. 노동조합도 없는 공장에서 일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고통의 대부분이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생산량의 노예나 기계부품과 같은 존재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자신이 노동자임에 자긍심을 느낄만한 신나는 일터를 일구는데 열정을 가지기를 바란다는 것이 애초에 무리인 것일까? 고백하건대 나는 아마도 그들과 같은 '진짜 노동자'는 아닐 것이다. 매일 매일을 기계 처럼 일하면서 10년을 근속해도 50만원이 채 안되는 봉급에 만족해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닌, 평생을 걸어도 후회없을 만한 일자리를 찾아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내가 어찌 감히 그들과 같은 '진짜 노동자'라고 자처 할 수 있겠는가?

나이 서른 넷에 이르른 지금에 와서야 진정한 독립을 꿈꾸는 내 특수한 상황 탓이라고 하더라도, 공장 노동자라고 자랑스럽게 자기소개를 하는 나 자신이 때때로 낯간지럽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굳이 자위를 하자면 나의 현재의 모습은 다름아닌 '공장 노동자. 여혜정'이며 나는 다른 동료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고, 그들에게 애정을 느끼는 만큼 그들이 희망다운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늘 따뜻하면서도 강한 동료이자 언니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까지 포함 해서 말이다.

"여혜정씨는 항상 내일을 향해 뛰고 있는 사람으로 느껴진다"던 어느 동료의 말이 다른 모든 노동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들 노동형제들의 헌신과 투쟁에 무한한 애정과 함께 최상의 경의를 바친다.

- 6. 1**
- 통일 맞이 7천만 겨레모임 집들이가 있었습니다.
 - 백형록(혁사노) 재판이 있었습니다.
 - 민가협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 초청에 따른 7일~17일 간 행사와 9일 목요집회에 대해 집중논의했고, 양심수후원회의 만남의 집 관리, 하루주 점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 조만조 부회장님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 6. 2**
- 목요집회가 권처홍 님(권용목 님 아버지) 등 노동운동, 노동자 구속 가족들의 사례발표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 한국기독교협의회 김동완 목사님의 총무 취임식에 함께하였습니다.
- 6. 7**
- '오월광장 어머니회' 회원인 '후아나 파르라멘트' 와 '아우로라 프라코리' 어머니께서 김포공항에 도착하셔서 민가협 유가협 회원등 초청추진위에서 마중나가셨습니다.
 -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초청추진위 주최 환영 모임을 가졌습니다.
- 6. 8**
- 이종환, 금재성선생님께서 일하시는 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금선생님께서는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경비일에 나가시고 계십니다.
 - 하루주막 표판매를 시작했습니다.
 - 기독교회관에서 6시 반부터 9시까지 '평화를 위해 싸워온 오월광장 어머니회 20년' 이란 제목하에 "용서도 않고 잊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주제로 초청강연회와 비디오 상영, 사진전시회를 열었습니다.
 - 숙명여대 88학번 동기모임에서 [말] 4월호에 나온 장기수 선생님 건강진단보고서를 읽고 선생님들을 위해 써달라며 100,000원을 모금해왔습니다. 따뜻한 정성과 관심 감사합니다.
- 6. 9**
-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들과 함께 하는 민가협 목요집회가 명동성당 앞에서 800명 이 모인 가운데 임수경, 임종석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 안치환, 김광석, 원창연등 여러분이 참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가협 서경순 상임의장과 아르헨티나 어머니회의 공동성명이 있었고, 공연이 끝난 후 촛불행진이 있었습니다.
- 6. 10**
- 이래선 선생님 1주기 맞이 묘소 참배를 다녀왔습니다. 유족과 옥중동지들, 후원회 일꾼들 함께하셨습니다.
 -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6. 25일 무연고 출소장기수 집마련을 위한 하루 주점 날짜와 만남의 집 관리, 출소 선생님 지원 문제등이 토의되었습니다.
 - 희망새 재판과 김영하(전대협 6기 조통위원장)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 6. 11**
- [후원회소식] 32호 발송작업을 했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 애써주셨습니다.
 - 제 5회 민족민주 열사 범국민 추모제 및 열사정신 계승 6월항쟁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오월광장 어머니들이 유가협, 민가협 회원들과 함께 영정을 가지고 추모제에 나오셨습니다. 대회 후 한양대에서 동대문 운동장까지 평화 대행진을 하였습니다.
- 6. 13**
- 민가협 회장단과 간사들이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의 가족들과 함께 안동교도소로 황대권, 김성만, 류정식선생님들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고문과 오랜 옥고로 지병을 앓고 계시는 이성우 선생님에 대한 면회가 소측에 의해 거절당했습니다. 안동교도소에 계시는 많은 장기수, 양심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 안동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15명 양심수에게 영치물을 넣었습니다.
- 6. 14**
- 오월광장 어머니들과 민가협 회원들이 세계 최장기수이신 김선명 선생님 면회를 위해 대전교도소를 방문 했으나 소측의 거절로 성사되지 못했고 함께한 민주당의 박계동 의원이 김선명, 송갑석 님의 면회를 하고 오월광장 어머니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교도소의 불법 행위에 대한 농성과 규탄집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 13일과 14일에 걸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안재구, 류락진, 이영기 씨등 25명이 안기부와 기무사, 홍제동, 경남, 경북 대공분실로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 6. 15**
- 대한변협 서초별관에서 '한국- 아르헨티나 공동 심포지움'을 열어 인권침해 범죄자의 불처벌 문제 등을 토론하였습니다.
 - 안기부와 홍제동에 연행되어있는 사람들의 가족과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홍제동 대공분실에서는 면회를 요구하는 가족들과 학생들을 경찰서로 연행, 또다시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서대문 경찰서로 연행된 사람들은 곧 풀려났습니다.
- 6. 16**
- '희망과 연대의 시작, 한국-아르헨티나 어머니의 밤' 환송행사가 조계 사에서 열렸습니다.
 - 민가협 목요집회가 탑골공원에서 있었습니다.
 - 윤정모 부회장과 후원회 업무에 관해 협의했습니다.
- 6. 17**
- (말) 7월호를 장기수 다섯분에게 발송하였습니다.
- 6. 18**
- 전국연합 주최 '우루과이라운드 국회비준저지 결의대회'가 여의도에서 시민, 학생등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어 연세대까지 평화대행진을 하였습니다.
 - 우루과이라운드 국회비준저지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하여 홍익대에 머물고 있던 남총련 학생들에 대해 당국은 전투경찰 수천명을 투입, 유혈참극을 빚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연행되었고 민가협 어머니들께서 부상학생들을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셨습니다.
 - 양심선언 군경 대책위의 하루주점에 격려 방문을 하였습니다.
 - 4월혁명 연구소 창립 6주년 기념 강연회에 함께했습니다.
- 6. 19**
- 양심수후원회 6월 산행이 회원 36명이 참여한 가운데 낙성대에서 연주암, 과천에 이르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 6. 20**
- 양심수후원회 지도위원이신 김승훈 신부님께 하루주점등에 대한 업무 말씀을 드렸습니다.
 - 민가협회원들이 서대문 경찰서로 남총련 구속학생을 면회하였습니다.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창립총회가 있었습니다.
- 6. 21**
-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언노련, 한겨레, 내일신문, 말지등을 방문하여 하루주막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 민가협회원들이 남총련 학생에 대한 편파보도에 항의해 KBS를 방문했습니다.
- 6. 22**
- 분단 반세기만에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28일 갖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자주적 평화통일을 기대해 봅니다.
 - 후원회 일꾼들과 '마로니에 호프' 답사등의 벽돌쌓기 준비를 하였습니다.
 - 6.18 남총련 사건 편파보도에 대해 동아일보사를 항의 방문하였습니다.
- 6. 23**
- 전투경찰이 새벽에 서울, 부산등 14개 지역 기관차 사무소에서 농성중인 전국기관차 협의회 소속 기관사와 검수원 624명을 강제 연행한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이 벌어졌습니다.

- 민가협 목요집회가 있었습니다.
 - 후원회 기획 모임이 열려 하루주막등 행사를 점검하고 역할분담을 하였습니다.
 - 민가협 회원들이 SBS, KBS 항의방문을 하였습니다.
- 6. 24**
- 민가협 회원들이 한겨레 신문 '김현철 명예훼손 20억 청구소송' 사건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 윤희보, 김지현님께서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 6. 25**
- 출소장기수 집마련을 위한 하루주점 '만남의 집, 벽돌쌓기' 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참조)
 - 광주 '사랑의 집' 개소식에 김영옥 운영위원께서 대표로 인사다녀오셨습니다. 후원회에서 4,000,000원을 집마련에 지원했습니다.
- 6. 27**
- 민가협회원들이 지하철 노조원의 농성장인 명동성당을 격려 방문하였습니다.
 - 종암, 성북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는 남총련 학생들을 면회하고 왔습니다.
 - 출소선생님 9분에게 지원금을 드렸습니다.
- 6. 28**
- 하루주점 표값 받는 일을 하였습니다.
 - 낙성대, 봉천동 만남의 집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 6. 29**
- 김영환(서울대 구국학생연맹 사건으로 옥고를 치룸) 아버님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 이덕우 운영위원과 만남의 집 관련 문제로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 한총련 제1기 의장 김재용(한양대) 군이 장안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가족들과 함께 면 회투쟁을 했습니다.
- 6. 30**
- 민가협 목요집회가 전기협 연행과 구속자 가족 사례 말씀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 장기복역 양심수 110명에게 영치금을 발송하였습니다.

▲▲▲ 7월 산행 ▲▲▲

언제: 7월 17일 이른10시

어디로 : 도봉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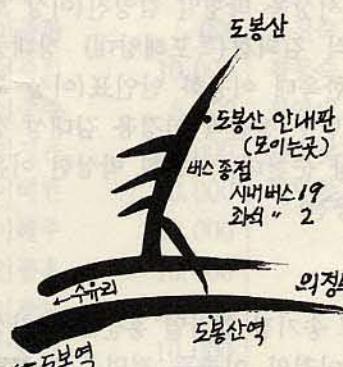
모이는 곳 :도봉산 안내표지판 앞

시내버스 19번(종점)

좌석버스 2번(종점)

전철 도봉산역 하차

갖출것 : 도시락과 회비 3000원



6월에 구속된 양심수

6월 들어 구속된 양심수는 모두 207명입니다. 이 수치는 민가협이 자체 파악한 통계로, 구속자는 주로 학교, 노조, 구속자 가족, 신문등을 토대로 파악할 수밖에 없기에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6. 18 남총련 사건 구속자 - 총115명

박홍영 위승택 오남준 박용희 유상호 박정균 서일석 김경진 고영근 이형철 남동균 조규실 김성희 김동인 김병훈 손동주 이재익 이경민 최훈 박상춘 최용현 배성익 이정권 박덕환 송 훈식 채희정 박남석 정종래 임영필 김선영 서 재문 박치면 송호림 박병욱(이상 조선대) 주한 성 설정란 김영민 문은미 안주현 김기태(이상 광주대) 박재봉 김영록 박종호 손동철 박현수 김형남 이혁(이상 동신대) 조병인 김상호 권성호 이승혁(이상 호남대) 김지훈 송계호 최천한 김선문 임용구 양병일 김형태 최철호 임석준 배재섭 임판식 조철훈 권혁범 임관동 한충근 변하연 이세호 고석주 이기범 이병국 김홍주 김봉선 박찬동 허영호 김지호 송대진 서정광 임현오 장정훈(이상 전남대) 한용수 조용준 신 현우 주창선 김종산 박정철(이상 조대공전) 박 용태 범상균 이지은 김유정 노미정 신소연(이 상 서강전문대) 서상욱 박형일 김영진(이상 보 건전문대) 주근식 김의겸(목포해양대) 장대중 최진호 정일환 한옥태 이동화 안인표(이상 목 포대) 안병일 오민수 정진혁 이경용 김대성 강 창진 김종철(이상 순천대) 이유희 박상현 이은 재 조상수(순천공전)

노동조합 파업

김창한 최용의 송기정 김상열 홍순호 최장신 박상수 이창환 이철의 이종두 정덕종 양동인 최치환 김명환 김선웅 김순태 노영근(이상 전 기협) 류강걸 한준오 유승호 양춘복(이상 부산

지하철) 채양수 이상기 박재철 안광기 오중희 윤상계 서정대 박진석(택시노련 대구시지부) 박정열 김명수 이연형 장갑권 정두희 이삼자 (이상 금호타이어) 윤종화 박용선 송준호(이상 대우기전) 김구연 박진수 서미애(이상 메리놀 병원) 임인애(부산 노동자문예창작단 대표 - 3 자개입)

구국전위 관련

안재구 유락진 박래군 정화려 홍중희 김진국 이영기 박화국 유성찬 안영민 최은열 이봉근 강동인 김종하 김한엽 성상락(이상 현 군복무 중, 경북대) 최영준 김정기(이상 한과청 회원) 김상식 김승한 원혜경 윤요상 조현미(이상 포 항민주청년회 회원)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조현완(현역 군인, 전남대) 김철미(백산서당 대표) 백삼용 정동석 박영희 김두하 이길용 김 회정 박정미 부혜진(이상 국제사회주의자 사 건) 이수옥 오도엽 오재수 김동현 김진배 정찬 수(이상 일심단결 사건) 김창환(93 강총련 의장) 김재용(93 한총련 의장) 박용진(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이지훈(인제대) 손병호(92 부경총 련 의장) 최금동(평화실현학생연맹) 문영열(현 역 군인)

기타

장재원 박희영(전농집회) 문대성 이금성(호 남대. 광주미문 앞 시위)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HRNE)가 창립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다른나라의 모범이 되었던 “유엔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 대책위”의 성과를 이어받고 인권단체들 사이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여 국내외의 인권신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인권단체협의회가 6월 20일 태어났습니다.

인권협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유가협, 천주교 인권위, 기독교 인권위 등 9개단체가 참여하였고 앞으로 인권현안에 대한 협의 조정, 인권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배포, 인권교육, 국제인권 대활동 등을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광주 “사랑의 집” 개소식

광주 사랑의 집이 6월 25일, 그동안 사랑의 집 건립추진위의 노력으로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김국홍, 김영태, 윤기남 선생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소: 광주직할시 동구 산수3동 508-19

전화: (062) 267-7342

고문수사관 집단고소

과거 시국관련 사건으로 안기부 등 수사기관에 연행돼 고문을 당했던 양심수 66명이 자신을 고문한 수사관을 7월 7일 집단고소, 고발했습니다.

이 집단 고소, 고발운동은 인권침해범죄자를 처벌해 이런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고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가 다시금 자행되지 않게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국가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하루빨리 구제, 특히 고문에 의해 장기구금중인 양심수들의 사건을 재조사하여 이들을 하루빨리 석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전국대 89모임 강미경(경기도 미금시) 유윤정(마포구 중드) 이동민(인천시 도화동) 향나무회 여든여덟(한~한국여전 탈퇴 88모임) 이형범(송파구 잠실동)

출소장기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하루주점 만남의 집, 벽돌쌓기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엄청난 노력으로, 주점안은 그야말로 발딛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붐볐습니다. 장기수 선생님들과 회원들은 물론, 많은 단체의 어르신들과 민가협 어머니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본 행 사의 뜻에 공감하시는 일반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부엌에서 뜨거운 불과 써름하며 하루종일 파전을 부쳐주신 회원, 머리가 헹클어진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안주거리를 날라주신 회원, 일 어진 재료를 사다주신 회원, 가족을 물고와 매상을 올리느라 안간힘을 써주신 회원, 하루종일 서서 비지땀을 흘리며 음식을 장만해주신 회원분들...
눈물겹도록 정성스런 여러분의 성원으로, 우리는 기어이 목표를 이루어내고야 말았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한번 깊이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 하루주점 재정보고 • (7/6현재)

들어온 돈(찬조금 포함) : 13,621,550원

나간 돈 : 4,549,830원

순수익 : 9,071,720원

* 수입금액의 지원내용과 더 들어온 표값은 다음호에 알려드리겠습니다.